

현불뉴스

종단마다 대형건축 불사

조계종 조계사 주변 4천여평부지 매입 회관 건립

태고종 천중복지관 40억투자

천태종 전통가람 불사 추진

조계 태고 천태종 등이 불교사에 길이 빛날 대형불사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기공될 각종단의 대형불사는 조계종의 불교종합회관, 태고종 재단법인 태고회의 천중복지회관, 천태종의 전통가람으로

한결같이 불교위상을 높이고 포교활성화를 기약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주)은 올해 불교종합회관을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 84년부터 조계사가 사찰주변 4천여평을 매입한 이 터에 들어서게 될 불교종합회관에는 대법당과 종무기

관 뿐 아니라 신원단체 방송 언론기관이 들어서는 한국불교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이달말 건립추진위를 구성할 조계종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명실상부한 불교종합회관의 면모를 갖추는 방침이다.

태고종 재단법인 태고회(이사장 이규범)는 정릉 천중사부지에 40여억을 투자하여 지하층 지상 10층에 건립 1천5백평의 천중복지회관 건립을 최근 구정으로 부터 허가받고 올해말까지 건립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천소년교에 역점을 두고 마련되는 이 복지회관은 청소년독서실 불교도서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양로원 고아원의 시설도 검토중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최근 정부로부터 불허받은 분당신도시 구미동 6천2백평부지에 한국전통가람의 표준형 사찰을 건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말 기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통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노인이 노인 위문 정자노인대학(학장 안순식) 학생 300여명은 성도절을 기념하여 지난 14일 연꽃마을 노인양로원의 노인들과 함께 부채춤, 징고춤 등을 추고, 준비해간 과일과 음식을 나누는 등 모처럼만에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윤인=고양배 기자)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캠페인

고려대장경연구소 디지털화 팔만후원추진위 결성

2월11일부터 5월말까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가 디지털 팔만대장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이란 범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하 장경연구소)는 "작년 12월 1차 인력을 끝낸 고려대장경이 문화·학술적으로 온전한 가치를 갖기위해 교정·검색프로그램·이체자 등 아직도 2년간의 추가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중앙일보와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장경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부대중의 후원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 1억5천여만원이 소요될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장경연구소는 이미 '팔만후원회 모집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다. 정치·경제·문화·종교계 등을 망라해 1백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는 월하스님(조계종 종장)이 증명법사를 맡았고 종단원로와 주지급 인사가 각각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포진해 있다. 전문 화체유부 장란 이어령씨가 추진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려대장경 경판 전시회·디너쇼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기획됐다. 이 중에서도 삼성미술재단이 주관해 오는 5월9일부터 2주간 개최될 '고려대장경 경판 전시회'에서는 고려대장경·패엽경·티벳장경 등의 경판을 전시할 뿐만아니라 고려대장경 전산화 과정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단위 경전(3백만원) 이상을 후원해야 한다.

종림스님은 "고려대장경은 역사의 전환기에 온 국민이 참여해 제작됐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고려대장경 역시 경판에서 탈피해 디지털 고려대장경으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캠페인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오중욱 기자)

'최초 인쇄국' 놓고 한·중 논란

중국이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세계최초 인쇄술 발명권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수립에 들어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고학적 증거와 학술적인 논거를 토대로 △190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연대 △한국 목판인쇄의 기원연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라는 것을 3개 사항에 대해 유네스코에 정식 공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문화유산과 북경시 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구랍 26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특별팀을 구성, 대책수립에 들어갔다.

조선초 '영산회상도' 발견

안동 봉정사대웅전 보수중... 학계 감정의뢰

조선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가 발견됐다.

지난 15일 안동 봉정사주지법혜스님은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에 봉안되어 있는 후불탱화를 보수하기 위해 탱화를 벽에서 내리던 중 그 뒷벽에서 더 오래된 웅장한 벽화(영산회상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영산회상도를 살펴 본 김표영(중요무형문화재 102호)씨는 "미터방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므로 약 4백여년 이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교미술사상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는 1월25일까지 보수공사를 계속하는 봉정사측은 조만간 이 '영산회상도'를 학계 및 문화재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봉암사 인근 위락시설 철회 촉구

조계종, 환경부·건교부·문경시에 공문

조계종총무원(원장 원주)은 지난 16일 문경봉암사 근린지역 위락시설 조성계획과 관련,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문경시도 문경시에 공문을 보내 봉암사 인근 위락단지 조성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총무원은 공문에서 "봉암사는 조계종 중지를 이어가는 정신적 근간이 되는 참선수도도량"이라며 "위락단지가 조성될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문경시, 대한석탄공사는 은성탄광 폐광지역 문경읍 가운을 일대 1백25만평에 10개의 위락단지 조성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관광위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봉암사 경내에서 불과 3백미터 떨어진 가운은 원복리 산56번지 일대 대한석탄공사 소유토지 44만7천평에 조성할 계획인 가운리조트단지는 3백43억을 투입, 99년 완공할 계획으로 노인휴양촌 유스호텔 가족호텔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지사 등 정부인사 월주스님 방문 잇달아

지난 10일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조계종총무원 방문에 이어 11일 조만후 정부차관, 15일 강현욱 환경부장관이 잇달아 월주 총무원장을 예방했다.

이인제 경기지사는 노동법시국과 대선에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월주 총무원장은 노동법 시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노력을 촉구했다.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 대선에서의 중립입장을 밝혔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에게는 각지역의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 피해사태를 설명하고 환경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봉암사와 해인사 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17일 오전에는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총무원을 방문, 월주스님과 환담했다.

지난 110호 15면 '서원장 활동재개' 기사 가운데 "서원장은 총중사 문원을 설치하고..."에서 22일 개원되는 총중사 문원은 서원장과 관계없으며, 총중사는 명도라스님이 주지임을 밝혔다.

광주사암련 성도절 법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스님)는 지난 16일 광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보성스님(송광사 주지) 지선스님(백양사주지) 영조스님(증심사주지)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절 대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대상에 천운스님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파)은 지난 18일 불교회관에서 제8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관려기사 4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천운스님이 대상을, 김재영법사 정진스님(미륵 법우회 지도법사)이 공로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권력상에는 성법스님 김진택 최병수 정완석 정석준 심학섭씨, 가수 김흥국씨가 각각 수상했다.

승가원 올 예산 15억여원

사호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은 지난 13일 중앙승가대학교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5억2천여만원에 대한 올해 운영예산에 심의, 승인했다. 또 정교센터 신설, 한가족 이벤트, 주간보호센터 순회재활센터 개소, 그룹홈 사업 등 승가원 신년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경북도 정각회 창립1돌

경북도의회 의원불자들이 구성된 경북도의회 정각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10일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대웅전에서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이의근 경북도지사 주기돈회장 등 사부대중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주기돈회장은 "한성각 깨끗하면 정각(正覺)이고 한성각 맑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여 참나를 찾는다"며 "정각회불자들은 생활 속의 불교를 통하여 불국정토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라불교 초전지 학술조사

구미시는 한국고원대학 박물관(관장 정영호)과 5천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 96년 12월부터 97년 6월까지 신라불교 초전지역에 대한 유물유적 학술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학술조사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 나타났던 신라불교 초전지역에 입각하여 신라불교의 전래된 역사를 입증하고 초전지역의 유물유적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22일 강북불교협 신년법회

강북구 불교협의회(회장 동광)는 오는 22일 오전7시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을 위한 신년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동광(도선사 주지) 동훈(법종사 주지)스님을 비롯 장정식 강북구청장 김인길의원, 관세음합창단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장 좋은 전통 황토 솥작목기

◎ 전통 황토·솥작목기는 작목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작목효능 (2) 미용효능

〈황토로 만든 도자기 죄대〉
· 실용신안등록번호 제96-23002호
· 의정등록출원 제96-7626호

- 규격 높이 27cm×직경 33cm
-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지피해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강화약속 100알본+황토가루 100알본 포함
- 비약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 전통 황토·솥 작목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솥 작목기 : ₩ 270,000
침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료 배근실용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감퇴 병노 잔노 소변곤란 배노통등
〈H 30분 보온, 좌욕을 하십시오〉

● 얼굴피부속 노화물 제거피부가 보형제 및 피부노화방지 화해 재생
● 피부탄력유지 윤택해진 피부 맛시지 효과
● 기미 어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 비약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 미용 효능
● 피부노화 방지
● 기미 어드름
● 비약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 얼굴피부속 노화물 제거피부가 보형제 및 피부노화방지 화해 재생
● 피부탄력유지 윤택해진 피부 맛시지 효과
● 기미 어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 비약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 미용 효능
● 피부노화 방지
● 기미 어드름
● 비약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H 30분 보온, 좌욕을 하십시오〉

◎ 전통 황토·솥작목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료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 동맥경화, 당뇨병, 고혈압, 「본초강곡」 「향약집성방」 「신해경」 등의 옛서에서 황토와 약속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써여있는 기록과 단군 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속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속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 황토가루와 약속을 염분소금과 함께 팔팔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쬐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③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이따고서 최우려 구멍에 대고 찜질)

①(하리요동 척추질환 디스크) ②(이끼 목 디스크 통증 근육 중첩 질환에 당혹의 질환) ③(신경통 비만 시력증상 힘줄염 비만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병통 긴기질환) ⑥(손 발바닥 무릎 관절 피부 질환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속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솥뜸기

자매품

“알,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솥뜸기”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지 못해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솥뜸기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솥뜸기로 다시 살아난 실증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쬐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서 쬐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환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쬐는 고통이나 흉터가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솥뜸기를 쬐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솥뜸기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병문 및 전화상담

■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소

-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 (051)864-3740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